

지역 소식통

고창군도서관, 우수독서 프로그램 공모 선정

고창군도서관이 (사)전국책 읽는도시협의회 2022년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토닥토닥 고창, 치유 책 읽기’는 오는 26일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부 박동욱 교수의 특강 ‘漢詩와 사연으로 읽어보는 조선시대 가족이야기’를 시작으로 군립도서관과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예쁜 그림책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고령층까지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고창군청 오대종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는 ‘치유’로 정했다”며 “그림책 한 권 읽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몸과 마음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화랑훈련 25~29일 실시

2022년 화랑훈련이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부안군청을 비롯한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침투 및 국지도발과 전시전환, 전면전 등의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부안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절차와 작전 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이번 훈련은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작전, 해상 및 내륙 침투대비작전, 대테러 작전 등의 실제훈련과 적 침투예상지역과 예상도주로에 대한 군·경 합동동검문소 운용 및 불심검문 등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는 대항군이 운용되어 국가중요시설 침투 및 주요인사 납치 등의 침투대비작전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이에 군부대에선 주민신고로 적극 홍보해 훈련 기간 버스터미널이나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동수상자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선8기 군정운영방향 보고

관로 확대 · 브랜드 홍보 지원

권익현 부안군수, 2022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

권익현 부안군수가 18일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민선8기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먼저 부안군민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난 4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행정의 손길이 닿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다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민선7기가 미래로 향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민선8기는 부안군의 실질적 대도약을 이끌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생동하는 부안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민선8기에서는 △부안형 푸드플랜 완성을 통한 건강한 자족도시

△서해안권 최고의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수소·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선도 도시 △활력있는 경제, 살고 싶은 도시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 라는 5대 목표를 핵심 비전으로 정하고 부안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대적 변화의 기류에서 ‘소통, 혁신, 협치, 위민’ 이라는 네가지 행정 원칙을 정하고, 민선8기 부안군정은 소통에서 시작하여 군민을 위한 일로 마무리될 것이며, 그 과정에 혁신과 협치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847억으로 본격적인 예산 8천억 시대를 열었으며, 부안군 예산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신청 · 접수

정읍시가 2023년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접수를 받는다.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년 전라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전북 대표상품으로 선정해 품질을 인정하고, 관로개척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다. 지역 내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정읍시청 미래청 단산읍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지역 내 분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한한다. 종사자 수는 300인 미만이며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해야 한다.

신청 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소비자용품 등 3개 분야로 기업별 대표상품 1개 품목만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원료 사용 기준으로는 농·축·수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도 국내산이며 공산품은 일부 원료 수입산도 인정한다.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선정되면 수도권 등 지역별 특관행사, 전북 우수상품관 입점,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홍보광고와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등 관로개척에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이화수 시장은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사업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면서 “지역 내 기업들이 전북은 물론, 전국 최고의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인 간담회와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기업에 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과 기업의 고충과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6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 중심 투명한 업무 처리에 노력해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영상회의의 실국별 업무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당면한 시정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며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18일 영상 간담회에서 실국별로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업무별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점검했다.

먼저, 18일 새벽 내린 비로 농작물이나 축사 등의 피해가 없는지 현장에 나가 세심하고 철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 일반 좌식 음식점을 40석 이상의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세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공기업 제안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읍역 컨퍼런스센터 건립과 무성사원 유교 수련원 건립 등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사업들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7월 정기 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읍·면·동장들은 지역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나가 직접 목소리를 듣고 불편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 중심의 꼼꼼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시민, 의회와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정읍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고용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을 시작해 청년 구직난 해소에 다소 승풍이 트일 전망이다.

정읍시시장 이학수는 18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2022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는 지역 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활용해 다양한 공직 체험의 기회와 자기 계발에 필요한 재정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무내용 안내와 근무 중 유의할 사항이 전달됐다. 이후 최재용 부시장

이 직접 대학생들을 격려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약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는 총 100명이 참여하게 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정읍시청을 비롯해 읍면동의 행정 사무보조와 캠퍼스 등의 현장 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최재용 부시장은 “비록 4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읍의 미래이자 희망인 대학생들이 각자 꿈을 키우고 직업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없이 근무를 잘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칠보물테마유원지, 개장... 8월 21까지 운영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식 개장한 물놀이장에는 주말 이를 동안에만 약 3,500여 명의 물놀이객이 다녀갔다.

칠보물테마유원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깨끗한 수질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시설, 철저한 안전대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놀이장에는 2천30㎡ 면적의 어린이풀장과 유아풀장을 비롯해 샤워장

과 물품보관소, 수유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한 바다슬라이드와 워터캐널, 워터드롭, 워터스프레이, 바다분수 등 각종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기에 안성맞춤이다.

시는 물놀이장의 수질 악화로 인해 이용객이 질병이 생기기 않도록 매일 바다 청소와 물 교환으로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 시간 50분 후 휴식 시간 10분을 운영하고, 여



과기를 이용해 깨끗한 물속에서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를 위해 안전요원 25명, 공무원 5명 등 총 30명의 운영인력을 배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